

2018년 1월 31일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히로시마 지사

**주고쿠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역 종합안내소'가 일본정부관광국(JNTO) 인정
 외국인 관광안내소 '카테고리 3'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에 히로시마시와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가 개설한 '히로시마역 종합안내소'가 이번에 일본정부관광국(이하 'JNTO'라고 함.)의 방일 외국인 관광안내소 인정 제도에 따라 주고쿠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카테고리 3※'을 취득하였습니다.

JNTO의 방일 외국인 관광안내소 인정 제도는 입지와 기능 등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와 파트너 시설로 나누어지며 카테고리 3은 최고 등급을 의미합니다.

인정이 되면 JNTO의 해외사무소와 외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소의 정보가 해외로 발신됨과 동시에 통역서비스와 연수회 실시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안내소의 기능 충실과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히로시마역 종합안내소는 개설 후 3개월간 약 7만명이 방문하여 전년 동기비 약 2배, 그중 외국인은 약 2.6배로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방일 외국인 관광객 대응에 충실을 기하고, 방문자를 '환대'하며,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JR 히로시마역은 신칸센 개찰구 근처 알기 쉬운 위치에 본 안내소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하물 임시 보관소, 환전기, ATM을 함께 배치해 편리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1 인정일

2018년 1월 31일(수)

2 히로시마역 종합안내소 개요

(1) 영업시간

6시~24시까지(연중무휴)

(2) 관광 및 교통 정보 충실

관광 팸플릿 등으로 전국 레벨 안내

(3) 방일 외국인 대응 충실

영어 대응이 가능한 직원을 상주시키는 한편 영어 외에도 14개 언어에 대해 전화 통역 서비스로 대응

(4) 기타

- 방문객이 관광 정보 등을 입수하기 쉽도록 태블릿 단말기 설치
- 무료 공중 무선 LAN 서비스 'HIROSHIMA FREE Wi-Fi' 이용 가능

※카테고리 3의 주요 기준

- 항상 영어를 포함해 3개국어 이상 대응이 가능
- 전국 레벨의 관광안내를 제공
-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 Wi-Fi 설치 등

